

## 라인홀드 니버의 『정치학』에 드러난 “미국정신”에 대한 연구\*

성신형 (숭실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제국주의와 “미국정신”
- III. 니버의 정치이론과 국제정치
- IV. 니버의 『정치학』에 드러난 제국주의적인 수사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8.02>

---

\* 본 논문은 2016년 10월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흐름상 당시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가 있던 시기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게 때문에 논문을 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달라졌음을 미리 밝혀둔다.

---

• ABSTRACT •

---

A Study of “the American Spirit” based on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Seong, ShinHyung(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delves into Reinhold Niebuhr’s political thought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In particular,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imperial implication on Niebuhr’s idea on international politics. Barak Obama used a political rhetoric such as “the American Spirit” as he ignites the pride of American nationality, and he spok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olitical thinkers was Reinhold Niebuhr. After 9/11, not a few scholars have been criticizing America as a new Empire ruling over the world. With this idea, this research studies the Niebuhrian international politics as his political thoughts are related to the American Imperialism in that it emphasizes the imperial foundations such as American responsibility, American destiny, Christians as the chosen people, and the advocator for the freedom and democracy. And he justifies the usage of power for the world peace as other empires had done. Lastly, the unique form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tries to organize a political speech as if Obama speaks his political ideas toward people in order to exemplify “the American Spirit” as a political rhetoric for American Imperialism.

**Key words:** Reinhold Niebuhr, Barak Obama, the American Spirit, International Politics, Imperialism.

---

## I. 들어가는 말

2006년 오바마는 『대담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오바마는 단일 민족국가가 아닌 미국을 향해서 민족주의적인 내용의 상당히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오바마의 캐치프레이즈인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이라는 구호와 함께 대담한 희망(*audacious hope*)은 오바마의 상징적인 구호가 되었다. 여기에서 오바마가 강조한 것은 “미국정신(*the American spirit*)”이다. 오바마가 강조한 미국정신은 갈등으로 점철된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실업과 빈곤 등의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다.<sup>1)</sup> 이 책에서 오바마는 특별하게 자신이 주장한 미국정신이 기독교적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각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리의 황금율, 사랑과 박애의 정신, 겸손과 은혜의 정신 등을 말하고 있다.<sup>2)</sup>

한편 오바마는 2007년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2009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말한 미국정신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미국의 신학자 니버의 영향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니버의 『미국 역사의 아이러니』(*The Irony of American History*)에 나온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피력했다. 그런데, 오바마의 대담한 희망과 미국정신이라는 수사가 미국 바깥의 사람인 필자가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썩 편

---

1) Barak Obama, *The Audacity of Hope* (New York: Vintage Books-Random House, 2006), 421, 홍수원 옮김, 『대담한 희망』 (서울: 랜덤하우스, 2006), George Stroup, “Obama, Niebuhr, and the Politics of Hope,” *Journal for Preachers*, 33(2009), 37쪽에서 재인용.

2) 위의 책 265, 위의 글 38쪽에서 재인용.

하지만은 안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바마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미국에 도입하면서 미국정신을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오바마의 생각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생각의 기초에 니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말한 민족주의적인 표현인 “미국정신”은 제국주의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역사상 제국주의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다른 민족과 나라에 영향력을 미쳐서 지배하려고 하였다. 그것을 위해서 거창한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지배국의 보호 아래에서 피지배국이 누릴 수 있는 평화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제국주의는 발전해왔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군사적인 패권을 형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경제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오바마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미국정신”에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이 책임과 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sup>3)</sup>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인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타국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한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음을 보게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오바마의 “미국정신”과 담대한 희망에 영향을 준 사람들 가운데 니버가 자리잡고 있다. 니버가 미국의 정치이론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니버는 기독교 현실주의에 입각한 정치이론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1960년대에 미국 국무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현실정치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오바마가 니버를 직접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로 니버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기도 하다. 정치 윤리적인 이상주의를 극복하고자 현실주의를

3) 오바마, 『담대한 희망』, 449-450.

주장한 니버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국제정치 속에서 이것을 확대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인 기독교 정신(사랑의 윤리)에 입각한 힘의 균형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니버가 미국 정치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니버의 정치사상이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흐름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니버의 『정치학』(*Reinhold Niebuhr on Politics*)을 바탕으로 미국 민족주의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sup>4)</sup> 니버의 『정치학』은 미국의 니버 학자인 해리 데이비스(Harry R. Davis)와 로버트 굿(Robert C. Good)이 편집해서 1960년에 발간한 책이다. 이 책은 니버가 직접 쓴 정치에 대한 그의 여러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집대성해놓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 정치에 대한 윤리적인 해석, 그리고 국제관계에서의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책을 통해서 니버의 정치사상의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니버의 국제정치 이론을 다루면서 그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비록 미국이 단일 민족국가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의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그것이 미국을 패권 국가로 만들어가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 II. 제국주의와 “미국정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단순한 욕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서구 사회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제국주의적인 힘은 다른

---

4) 이 책은 1962년에 중앙문화사에서 박경화 번역으로 『현대 정신비판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나, 현재에는 절판되었다.

사회를 가능하면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욕망은 군사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오고 있다. 국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힘을 떨친 제국주의는 단순히 군사적인 우위만 주장하지 않고, 도덕적인 우위, 사상적인 우위, 심지어 인종적인 우위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미국을 거대한 제국으로 바라보고 있다.<sup>5)</sup> 비록 미국이 스스로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런 경향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이 역사상 다른 제국들과 같은 형태의 제국주의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현재까지 절대군주 지배하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국을 제국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은 현재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이런 경향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국가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제국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sup>6)</sup> 이 문제는 국제 사회

5) John B. Cobb Jr. "Commonwealth and Empire", in *The American Empire and the Commonwealth of God*, eds., David Ray Griffin, John B. Cobbs Jr., Richard A Falk and Catherine Kelle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37.

6) Catherine Keller, "Omnipotence and Preemption", 위의 책, 123-124.  
미국이 어떤 제국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 제국주의에 대한 견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의미의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날 세계화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경제제국주의와 문화 제국주의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경제제국주의는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경제적인 의미의 식민지로 두는 것이다. 현재 신자유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한편, 문화제국주의는 문화적으로 종속상태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말하기도 한다. 서구 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교유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종속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가 이러한 세가지 경향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니버의 시대에서 니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군사정치적인 의미가 클 수 있겠지만, 오늘 날의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이 부분 한가지

에서 힘의 사용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현재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예방적인 차원의 힘의 사용, 즉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힘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힘의 사용은 로마 제국의 로마를 통한 평화라고 일컬어지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정신과 비슷하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평화를 구가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로마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로마의 공화정 지배하에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지배 이데올로기가 현재 미국의 상황과 비슷한 이유는 미국이 건국 이래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을 “새로운 로마”로 규정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데에서부터 기인한다. 이것은 미국의 정체성의 문제로 미국이 초기에 등장하면서부터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자신들은 국가를 건설했으며, 자신들은 언약에 따라서 “엑소더스”를 통해서 신대륙에 정착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유의 땅인 신대륙에 그들이 건설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정체성은 그들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잡은 후에 더욱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은 세계를 향해서 자신들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그

---

만으로 제국주의를 설명할 수는 없겠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본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라는 기본 개념, 즉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종속국으로 두려고 하는 일련의 사회, 정치, 문화적인 과정이다.

7) 같은 글.

역설적이게도 현재 미국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이런 조짐에 균열이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화당의 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국민들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미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보로 선출되게 되었다. 물론 해외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미국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떨쳐버리자는 주장은 분명 현재 미국의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견제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국가가 되었다.<sup>8)</sup>

로마가 ‘팍스 로마나’의 가치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용하였던 두 개의 무기는 질서와 공포심이었다. 로마는 정복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피지배민들에게 “도시화” 혹은 “문명화”에 대한 약속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약속은 로마의 피지배지의 국민들에게 부여된 “질서”였다. 도시를 건설해 주고 피지배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면서 로마의 질서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질서는 로마사람들 자신에게는 승리가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대가이며,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제국의 아량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제 로마가 피지배민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복당한 패배자들에게 요구하는 “충성심”이다. 제국에 충성하는 민족에게는 평화를 약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에게는 공포를 안겨다 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질서와 공포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sup>9)</sup>

미국이 세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이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미국은 일방주의적인 제국으로 세계에 등장해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의 기초는 그들의 기독교 정체성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해한 기독교 정신이 “미국정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건국 초기부터 자신들이 이해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정신의 가장 적절한 예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8) Richard A. Horsley, *Jesus and Empire - the Kingdom of God and the New World Disord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1-5.

9) 위의 책, 25-28.

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해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commonwealth)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망각하고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이익(individual wealth)을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sup>10)</sup>

오바마 대통령의 수사는 제국주의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오바마는 진보적인 혹은 정치인으로 기존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미국만이 다른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우월주의도 경계하고 있다.<sup>11)</sup> 더 나아가서 그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입지만을 생각하고 협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과도 같은 신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가꾸 솔선수범하는 것이다.”<sup>12)</sup> 세계의 모범이 되어서 세계가 미국의 가치와 정신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자국의 군사주의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를 향한 미국의 책임감

10) John B. Cobb Jr. “Commonwealth and Empire”, 142-145.

여기에서 필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John Cobb이 본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commonwealth’는 ‘공공복리’라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이 단어는 그 보다 더 많은 경우에 영국의 연방국이나 미국의 연방국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글의 저자는 자신이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 단어조차도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사실 John Cobb이 제시한 공공의 복리라는 것이 미국적인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정치적인 수사라는 생각을 필자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인인 Cobb가 사용한 용어가 외국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다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11) 오바마, 『담대한 희망』, 442-445.

12) 같은 책, 449.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해서 자신들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또 다른 수사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것은 오바마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미국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니버를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철학자중에 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니버의 현실주의가 자신의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하고 있다.<sup>14)</sup> 이런 점에서 니버는 “미국정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니버의 생각과 오바마의 생각의 어떤 부분이 헤게모니 세력으로서의 오늘날의 미국을 형성하게 되는 데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제국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만들어 낸 미국의 정치는 오늘 날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하는 “미국정신”속에 녹아들어가 있음을 오바마의 자서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연설과 인터뷰 등에서 잘 살필 수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제국주의자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 이런 비판을 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 III. 니버의 정치이론과 국제정치

니버의 정치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니버의 정치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13) 같은 책, 450-452.

14) David Brooks, “Obama, Gospel, and Verse”, New York Times, April 26, 2007.

국제 정치와 관련해서 니버의 생각을 살피고 그러한 생각들이 제국주의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니버의 정치이론은 오늘 날까지도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니버는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깊게 관여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성의 정책진에 참여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니버의 표현대로 하면 아이러니컬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강력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나라의 정치사상에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소위 기독교현실주의로 알려진 니버의 정치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찾아보자면 초월을 원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비이성적인 사건들과,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분석과 인간 사회의 규범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의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니버의 사회윤리의 기초작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분석과 규범의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sup>16)</sup>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니버는 완전한 형태의 정치 형식은 아니지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민주주의를 역설하고 있다. 니버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였고, 불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은 민주주의를 필요하게 만들었다”고 역설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sup>17)</sup> 니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15) 황민효,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론의 재고”, 『한국조직신학논총』 29(2011), 192.

16) 전재성, 『정치는 도덕적인가 -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파주: 한길사, 2012), 336-337.

17)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4), xiii. 이한우 옮김, 『빛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들』 (서

이유는 개인의 가치(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정신적인 기초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은 민주주의의 형식, 즉 사회적인 측면이다.<sup>18)</sup>

이런 관점에서 니버는 정치체계의 기초로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유럽의 중산층 중심의 부르주아 정치체계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의 체계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사회적인 성격이 무시된 것이다. 공동체를 희생하면서 개인을 최고의 가치로 둔 정치체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차원 못지 않게 사회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니버는 유기적인 실체로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 공동체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서구 유럽의 전체주의가 무너지게 된 원인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성격이 무시되고 도덕주의적이고 유평파적인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19)</sup> 공동체에 대한 니버의 이와 같은 생각이 그의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니버의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역사 속의 미국이 지니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기독교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부여한 특별한 의미에 기초하고 있다. 매우 특별한 신앙의 경험에서 출발한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니버는 신앙과 역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삶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유럽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유럽과는 사뭇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경건하면서도 세속적인 나라를 만들어냈다. 유럽으로부터 미국을 분리시켜가면서 신대륙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과 경제적 안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내면

출: 문예출판사, 1995), 황민효,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론의 재고” 193쪽에서 재인용.

18) 황민효,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론의 재고”, 193.

19) 이형태, “미국 지성사에서 라인홀드 니버의 위치”, 『미국사연구』 6(1997), 199-202.

서 미국의 역사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컬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정치와 역사의 불안전성과 선과 악의 모호함에서 발생하는 이런 아이러니는 미국의 이상주의와 절충될 때에만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20)</sup> 이와 같이 매우 기독교적이면서도 매우 세속적인(혹은 현실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니버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있어서 니버의 권력과 도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고민은 국제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폭력적인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니버는 힘의 균형을 통한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를 주장하면서, 거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힘의 사용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서서 정의로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1)</sup> 니버는 이성의 힘에 의존한 정부간의 타협에 의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 이상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또한 무저항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의 절대적 평화주의자들도 함께 비판하였다. 니버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현실적인 힘의 균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능태로 보았다. 국가 간에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길은 불가능한 것으로 기독교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의 윤리는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정치적인 선택과 전략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sup>22)</sup>

사랑의 윤리가 기독교인이 추구해야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폭

---

20) 위의 글, 205-206.

21) 전채성, 『정치는 도덕적인가 -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230-231.

22) 위의 책, 249-251.

력이 엄존하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치관계에서 사랑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길은 힘의 균형이다. 이런 점에서 니버는 사랑과 힘의 균형의 양립을 주장한다. 사랑에 기초한 힘의 균형을 추구할 때에 보다 더 정의로운 정치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니버는 사랑의 윤리에 기초하면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니버는 힘의 사용을 옹호한다. 물론 니버는 비폭력적 강제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폭력적 저항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더 심각한 폭력을 막고 상대방에게 도덕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폭력의 사용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sup>23)</sup>

니버는 20세기 중반의 전쟁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전쟁의 공포를 딛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면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미국의 책임은 막중하다. 예를 들어서 니버는 핵무기의 사용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sup>24)</sup>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전쟁도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sup>25)</sup> 이러한 주장을 견지하면서 니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다. 이 책임감은 미국의 독특한 역사에서 형성되게 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책임감이며, 동시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국제적인 리더십에서 나오는 책임이다.<sup>26)</sup> 이 책임감이 바로 앞서

---

23) 위의 책, 254-257.

24) 위의 책, 269.

25) 위의 책, 286.

26) 위의 책, 297-298.

오바마가 강조한 “미국정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니버의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과 그의 정치 이론은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형성하는 데에 정당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자신들의 힘의 사용에 대한 신학적인 정당성까지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공헌을 무시한 채,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을 부당한 평가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미국 사회가 국제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은 다분히 패권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모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니버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그 철학적인 도움을 준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 IV. 니버의 『정치학』에 드러난 제국주의적인 수사

니버는 자신의 기독교 현실주의와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국제정치사상을 발전시켰다. 물론 그는 1970년대까지 활동하면서 정치사상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니버의 작품 『정치학』을 읽어 가다 보면 오늘날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당부분 비슷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한 정치적인 생각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과 책임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지켜내기 위해서 화려한 수사로 그들의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니버의 희망과 책임에 대한 니버의 생각들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sup>27)</sup> 여

27) 니버의 희망과 책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Reinhold Niebuhr & Contemporary*

기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니버의 『정치학』에 드러나 있는 그의 국제정치사상을 연설의 형식으로 재구성해보았다. 연구자가 니버의 국제정치 사상을 연설문 형식으로 재구성한 이유는 서론에서 밝힌 오바마의 “미국정신”과의 연결점을 찾기 위함이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연설에 매우 뛰어난 오바마의 입장이 되어서 국제정치에 대한 연설문을 니버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았다.<sup>28)</sup>

“정치는 기본적으로 힘의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나 정의, 혹은 조화의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바라는 희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믿음에서 오는 것이며 용서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적으로부터 화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주며 이러한 깨달음은 불의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는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순수한 형태의 평화가 아니라, 최악의 깨달음과 뉘우침에서 오는 용서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이나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sup>29)</sup>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리더십은 세계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우

---

*Politics - God & Power*, eds., Richard Harries and Stephen Platt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에 수록된 Robin, W. Lovin이 쓴 “Reinhold Niebuhr in Historical Perspective”를 보라.

28) 사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수사적인 차원에서 연설문으로 재구성할 것인지,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였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의 주제와 전체적인 흐름이 니버의 정치사상 속에서 제국주의적인 의도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수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연설문 형식을 빌려서 논증을 진행하였다.

29) Harry R. Davis and Robert C. Good, eds.,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206-209.

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힘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리더십은 공산주의가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성한 부정적인 문제들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반대해서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농경중심의 봉건주의적인 사회에서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치적인 정의와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서구 문명이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 도덕적인 권위를 크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의 위협과 전쟁(특히, 핵전쟁)의 위협을 거부하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sup>30)</sup>

이러한 현실 속에서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로운 세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힘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러한 정치 형태에 반대하기 위해서 무정부주의적인 상황을 지향하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무정부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완벽하게 평화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부합한 적당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현실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서로 받아주고 관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sup>31)</sup>

정치적인 힘으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구조는 전체군주주의를 만들어 내거나, 무리하게 공동체들을 연합하게

---

30) 위의 책, 240-243.

31) 위의 책, 244-246.

만들므로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쉽습니다.<sup>32)</sup> 우리는 이러한 예를 고대 사회의 제국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독재 권력이 거대한 힘을 장악하고, 공동의 언어와 공동의 문화와 공동의 종교를 만들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힘”이라는 구호가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방주의적인 결과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sup>33)</sup> 우리는 또 다른 예를 20세기 초의 공산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세계인들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기초로 세계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은 세계인들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차이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세계 공동체를, 또 다른 이들은 도덕론에 입각한 세계 공동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핵의 공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고, 도덕론적인 노력은 산적해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결국 우리의 희망은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이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sup>34)</sup>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의 책임감은 더욱 무겁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세계의 일치와 자유를 증진하는 일에 사용되어 질 때, 우리는 세계를 위한 충성스러운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세계를 지배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더욱 자유롭고 관용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sup>35)</sup>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헤게모니는 그 어느 때 보다는도 막강합니다. 이러한 힘은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자유를 소중하기 여기는 정치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

32) 위의 책, 247.

33) 위의 책, 250-251.

34) 위의 책, 252-253.

35) 위의 책, 257.

이런 힘이 주어지게 된 것은 세계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책임감을 키워가면서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수함으로 미국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sup>36)</sup>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국주의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제국주의적인 지배욕구는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리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분리주의는 우리의 책임감을 망각하게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막강한 힘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sup>37)</sup> 우리의 힘은 우리를 과시하려는 교만한 것이 되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세계를 향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을 거부할 때 우리의 미덕을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꿈은 세계를 우리의 발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평화의 공동체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적인 희망입니다.<sup>38)</sup>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면과 성실함으로 경제적인 힘을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는 앞으로 세계의 문제들과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존재로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가치들을 지켜냄으로 조금 더 정의롭고 평화

---

36) 위의 책, 270-271.

37) 위의 책, 272-274.

38) 위의 책, 275.

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sup>39)</sup>

자 이제 우리는 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세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계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의 책임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세계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일방적인 힘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관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인 사명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상에서 오바마가 언급한 “미국정신”의 측면에서 니버가 주장한 국제 질서와 정치철학에 대한 부분을 연설문 형식으로 구성해보았다. 이 속에서 녹아있는 기독교중심가치, 미국중심주의, 미국의 운명, 책임감 등은 미국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제국주의적인 수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들의 운명과 책임을 역설하면서 군사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인 힘의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현재 가장 큰 제국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 정치철학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니버 역시, 그의 정치철학에서의 많은 장점에서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버락 오바마의 “미국정신”이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해서 현재 미국 정치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니버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

39) 위의 책, 279-280.

그의 국제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패권 국가로서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지속하려고 하는 속내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한, 그 속에 깊게 숨어 있는 제국주의적인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 설혹 그것이 자유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힘의 지배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 국제사회의 굴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니버의 『정치학』(*Reinhold Niebuhr on Politics*)을 바탕으로 니버의 정치사상이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흐름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논증하였다. 특히 니버의 생각들을 하나의 연설문의 형태로 구성해봄으로, 마치 오바마가 연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니버의 국제정치사상을 재구성했다. 미국은 자신의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또한 미국자신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가 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미국의 희망과 책임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거대한 목표가 미국에게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러한 희망과 책임 속에서 미국이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패권국가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정당화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니버가 정치사상을 발전시켜가면서 국제사회에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를 지키는 것에 대한 정치학적이고 기독교 사회윤리적인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점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지만, 미국 바깥에서 니버의 정치사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윤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니버는 미국의 제국

주의적인 패권 형성에 기초를 놓은 윤리학자라는 평가를 쉽게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기독교사회윤리가 특히 한국의 기독교사회윤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도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과제가 당연히 따르기 마련이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윤리적인 담론을 거부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윤리적인 담론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니버의 길을 아무런 비판 없이 추종하지 않고, 니버를 이해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회윤리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면서 본 연구를 마친다.

## 참고문헌

- Brooks, David., “Obama, Gospel, and Verse”, *New York Times*, April 26, 2007.
- Davis, Harry R., and Good, Robert C., eds.,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 Griffin, David Ray., Cobbs, John B. Jr., Falk, Richard A., and Keller, Catherine., eds., *The American Empire and the Commonwealth of Go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Harries, Richard., and Platten, Stephen., eds., *Reinhold Niebuhr & Contemporary Politics - God &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Horsley, Richard A., *Jesus and Empire - the Kingdom of God and the New World Disord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Obama, Barak., *The Audacity of Hope*, New York: Vintage Books-Random House, 2006.
- Niebuhr, Reinhold.,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4.
- Stroup, George., “Obama, Niebuhr, and the Politics of Hope,” *Journal for Preachers*, 33(2009).
- 버락 오바마, 홍수원 옮김, 『담대한 희망』 서울: 랜덤하우스, 2006.
- 라인홀드 니버, 이한우 옮김, 『빛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들』 서울: 문예출판사, 1995.
- 이형대, “미국 지성사에서 라인홀드 니버의 위치”, 『미국사연구』 6(1997), 183-209.
- 전재성, 『정치는 도덕적인가 -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파주: 한길사, 2012.
- 황민효,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론의 재고”, 『한국조직신학논총』 29(2011), 183-213.

논문투고일: 2017년 06월 30일

심사게시일: 2017년 07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08월 04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니버의 『정치학』(*Reinhold Niebuhr on Politics*)을 바탕으로 니버의 국제정치 사상을 살펴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연설문의 형태로 구성해봄으로, 마치 오바마가 “미국정신”에 대해서 역설함으로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재현해보았다.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미국은 자신의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 즉 기독교적인 요소와 다양한 이민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가 됨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거대한 목표가 미국에게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러한 희망과 책임 속에서 미국이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패권국가가 되도록 했다. 비록 니버가 정치 사상을 발전시켜가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를 지키는 것에 대한 정치학적이고 기독교 사회윤리적인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점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지만, 미국 바깥에서 니버의 정치사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윤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니버는 오늘날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패권 형성에 기초를 놓은 윤리학자라는 평가를 쉽게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제어:** 라인홀드 니버, 버락 오바마, 미국정신, 국제정치, 제국주의

---